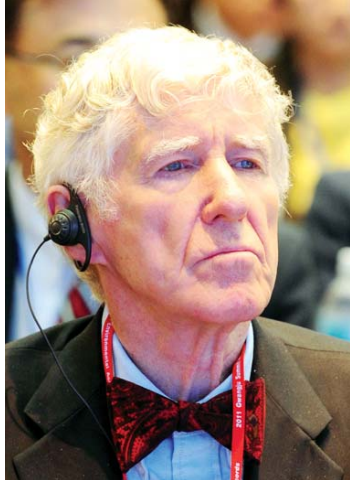


광주정상회의에 온 세계 환경전문가 인터뷰

레스터 브라운
美 지구정책연구소 소장

온실가스 배출 안줄이면 지구미래 없다



“광주에 세계 각국 도시 대표들이 모여 지구 환경을 이야기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으로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는 큼니다.”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77) 미국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도시의 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더 이상 지금 상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연자원을 고갈시켜 나간다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브라운 소장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이나 잘사는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개발중인 도시도 함께 해야한다”며 “개발도상국 등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첨단기술을 도입할 경우 선진국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명성 덕분에 브라운 소장은 광주 정상회의를 찾은 세계 각국의 언론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면서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있게 ‘미래 지구’를 위한 명쾌한 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소장은 이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등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곧 시민 개개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로 번말하고도 단계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있게 ‘미래 지구’를 위한 명쾌한 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소장은 이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등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곧 시민 개개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로 번말하고도 단계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후앙 크로스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도시 환경협약 사무국 광주설치 지지



“광주의 탄소중립제도가 무엇보다 흥미롭습니다. 포인트로 누적되고 도시 가구의 상당한 비율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11일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후앙 크로스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사무총장(62)은 탄소중립 시스템과 그로 인해 줄어든 에너지 규모 등을 꼼꼼히 질문했다.

탄소중립제도를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도입하면 UN이 별도의 기

금을 만들어 에너지 감축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시장의 제안에 후앙 사무총장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며, 이를 좀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완하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다음달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2012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 등에서 광주가 직접 설명하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교토의정서 효력이 2012년 만료돼 가는 시점에서 교토

의정서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번 광주정상회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후앙 사무총장은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협약회의의 격년제 개최, 사무국 광주 설치, 환경 우수도시 시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마니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 사무부총장

광주 ‘환경모델’ 세계화 적극 지원할 것



“광주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시 내 빈곤 퇴치를 위한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유엔환경계획이 큰 조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이 있는 만큼 광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마니 모하메드(여·51)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부총장은 탄소중립 등 광주의 모범적인 모델이 세계 각 도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다음달

3일 프랑스 칸에서의 G20 정상회의, 다음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의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앞두고 열린 광주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다”며 “이러한 회의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강운태 광주시장의 ‘도시환경협약회의’ UNEP 공동주최로 격년 개최, 실무기구 사무처 광주에 설치, UNEP 직원 광주 파견’ 등의 제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는 동의하며 실무적인 협상과 UN-EP에 대한 보고가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광주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동했으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세계 각 도시들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UNEP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시스템 보고회를 내년 2월 광주에서 개최하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F1 경주용 트랙에 ‘태극문양’

국내 최초 ‘그레이트 A’ 경주장인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의 안전지대가 화려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사진)

F1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5.615km의 트랙(직선구간 1.19km) 주변 F·G 스탠드 사이 공간(1만4816㎡)에 국내 최초의 F1 경주장의 상징성과 대 표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사용, 안전지대(Run Off)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가드레일·타이어 배리어·버지(verge) 등 경주장 검수에 필수적인 서킷 안전시설로, 대회 중 사고가 발생하면 드라이버들은 차를 멈출 ‘오프’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옮긴다.

올 시즌 F1 대회가 치러진 스페인 카탈루냐 서킷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에도 나라 및 지역을 상징하는 모양의 디자인으로 안전지대가 꾸며져 있다.

영암 서킷 런오프 지역은 ‘F1 코리아 그랑프리’ 글자와 깃발 문양 및 태극과 궤를 상징하는 흰색·빨강·파랑 색 특수페인트로 칠해졌다. 3998㎡에 미끄럼방지용 특수페인트를 사용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억3000만원, 3.3㎡당 3만3000원꼴이다.

F1조직위는 또 대회가 끝난 뒤 전 남·영암의 영문 표기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서킷 내 다른 런오프 지역을 조성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모두 6개소(4만4461㎡)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체커기’ 한국타이어 사장이 흔든다



16일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에서 체커기를 흔드는 인물은 조현식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선정됐다. 한국타이어는 영암서킷에서 열리는 ‘2011 한국 DDGT 챔피언십’을 후원하고 있다.

흰색과 검정색 체크무늬로 된 체커기는 모든 경기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다.

영국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찰스 왕세자가 체커기를 흔들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이, 모

빛의만평 - 김중두

생각 할수록 기분 뒀 같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JET 초·중·고 영어시험 | **ETS TOEIC Bridge**

제2회 호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대회일자: 2011년 11월 12일(토) 시행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신청
• 신청기간: 2011년 10월 4일(화) ~ 10월 31일(월)
• 신청방법: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YBM JET, TOEIC Bridge 홈페이지(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참조

대회요강
1. 1차 전형 - 초등부 JET, 중등부 TOEIC Bridge
2. 2차 전형 - 초·중등부: JET S&W(영어 말하기 쓰기 진행)
- 1차 전형 선발자만 해당
※전형방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응시료
• JET 22,000원(VAT포함), TOEIC Bridge 29,000원(VAT포함)

시상내역
-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선발 인원 및 해외연수 지역 추후 확정)
- 총 1천 6백만원 상당의 상품 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kwangju.co.kr / 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시행지역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각 시군구 및 주요도시

대회운영본부
• 광주일보(www.kwangju.co.kr), Tel. 062-220-0555

시험 관련 문의
• YBM 한국TOEIC위원회(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Tel. 02-2279-0505

지방 방문 접수처
• 광주 - 광주일보 본사 (062-220-0555) / 글로벌 교육 (062-381-0515)
• 목포 - 웅지교육사 (061-283-6801)
• 여수 - 한려서점 (061-652-0339)
• 순천 - 정문교재사 (061-724-9820)
• 전주 - 오렌지교육 (063-241-6476)
• 군산 - 진학사 (063-461-0226)

주최: 광주일보 / **YBM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YBM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한국영어교육학회